

큼 발전하지 못했다"며 "통일에 대한 환상을 가져선 안 된다"고 말했다. 또 "(통일 이후) 독일은 매년 GDP(국내총생산)의 4%를 구 동독 지역으로 이전해야 했다"고 했다. 그러면서도 "처음엔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하나 의문이 들겠지만 마지막엔 모두에게 이익이 됐다"며 "남북도 인내심을 가지면 통일의 수혜자가 될 것"이라고 말했다.